Global ESG Brief

기후 금융의 양극화: 후퇴되는 공약에 대한 주주 감시

[KB ESG리서치팀]
ESG Analyst 김준섭, 정혜정, 박건영, 차성원
joonsop.analyst@kbfg.com
hyejung.jung@kbfg.com
kun.park@kbfg.com
swcha01@kbfg.com

ESG이슈

2025년 5월 9일

더 많은 리포트 보기

유럽 최대 은행 HSBC의 기후목표 후퇴에 대한 기관투자자들의 적극 대응

AkademikerPension, Church of England Pensions Board 등 30개 기관투자자로 구성된 1.6조 달러 규모의 투자자 연합인 ShareAction은 HSBC의 기후목표 후퇴에 대응해 적극적인 주주행동에 나섰다. 지난 5월 3일 HSBC 연례주주총회에서 이들 투자자 그룹은 은행이 2030년 운영 넷제로 목표를 2050년으로 20년 연기하고, 2030년 운영 배출량 감축 목표를 100%에서 40%로 하향 조정한 것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HSBC가 석유·가스 부문 (34% 절대 감축) 및 전력·유틸리티 부문 (75% 원단위 감축)에 대한 기존의 2030년 재무 배출량 감축 목표를 재확인하고, 1조 달러 규모의 지속가능금융 약속에 대한 투명한 상세 내역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같은 움직임은 글로벌 금융기관들의 '기후 수탁자 책임' 범위에 대한 검토를 촉구하는 사례가 될 것이 예측된다. 이들의 ShareAction은 단지 HSBC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바클레이즈, 스탠다드차타드 등 다른 유럽 은행들에 대해서도 유사한 캠페인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은행 섹터가 "Paris-aligned Investor Initiative"의 권고안에 따라 2030년까지 석유 및 가스 관련 금융을 50%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HSBC를 포함한 글로벌 금융기관들의 최근 약화되고 있는 기후 목표와 배치된다. 금융기관들의 기후 목표 이행은 에너지 시스템 전환 속도 뿐만 아니라 각 국가의 정책에 영향을 받는 가운데 기관투자자들의 '기후 수탁자 책임'에 대한 영향력이 주목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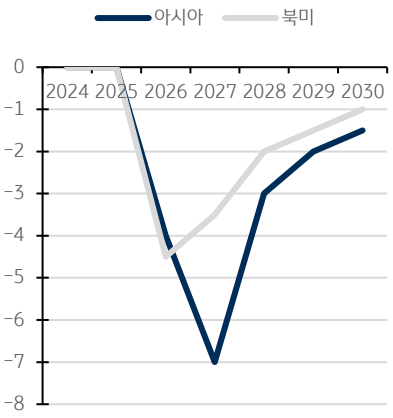
트럼프 정부의 청정에너지 정책 후퇴와 시장의 대응 양상

트럼프 집권 100일 만에 95개 청정에너지 프로젝트가 중단 또는 취소되면서 미국 에너지정책의 급격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특히 미국 수출입은행이 12년 만에 석탄 발전 대출을 재개하고, 풍력개발 중단 지시에 17개 주가 소송을 제기하는 등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 기후정책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 불확실성으로 미국 DAC 스타트업 투자가 60% 급감하고, 캐나다 로열뱅크는 71조원 규모의 지속가능금융 목표를 철회하는 등 기후금융 후퇴 조짐이 확산 중이다.

그러나 재생에너지의 경제성 향상으로 시장 주도의 에너지 전환은 계속되고 있다. 태양광과 풍력 발전 단가는 지난 10년간 각각 90%, 70% 하락하여 대부분 지역에서 신규 화석연료 발전보다 경제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 Larzard와 같은 기관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저장 프로젝트의 투자수익률은 평균 10-15%로, 화석연료 프로젝트의 8-12%를 상회한다. 이를 바탕으로 Amazon, Microsoft 등 주요 기업들은 청정에너지 구매계약을 확대하고, 블랙록, Vanguard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은 장기적 수익성을 이유로 청정에너지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 시티그룹은 "미국 내 기후테크 기업들의 투자 재고 움직임"을 언급하면서도 "글로벌 저탄소 전환의 경제적 당위성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NGFS (Network for Greening Financial System)는 최초로 단기 기후 리스크 시나리오를 발표하며, 기후 대응 지연 시 5년 내 글로벌 GDP가 1.3% 감소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반면 질서 있는 탈탄소 전환은 2030년까지 GDP 감소폭을 0.8%p 낮출 수 있어, 정책적 일관성이 필요함을 시사했다. 이에 미국 공화당 의원 12명이 IRA 지지 서한을 하원 재정위원장에게 전달하며 산업 경쟁력 차원에서 청정에너지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점이 주목할 만하다.

기후위기에 따른 북미, 아시아 지역 GDP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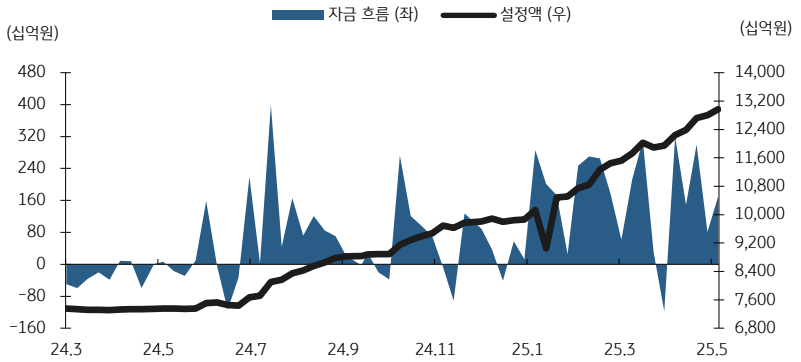
자료: NGFS, KB증권

주: 현재 각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기후 정책 하

ESG 펀드로 본 ESG 투자 동향

SRI 펀드는 전주 대비 1,707억원 유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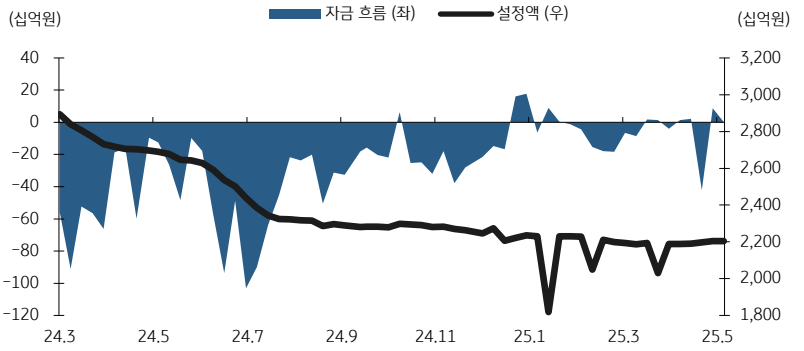
그림 1. 국내 SRI 펀드 AUM 및 자금 순유입 (주별)



자료: FNSpectrum, KB증권

ESG 주식형 펀드는 전주 대비 3억원 유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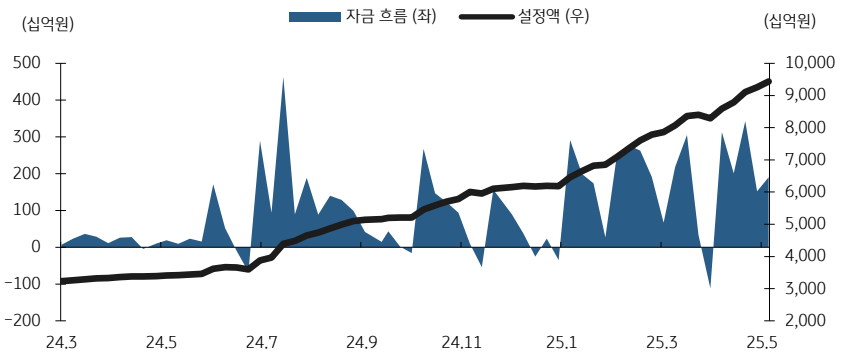
그림 2. 국내 ESG 주식형 펀드의 AUM 및 자금 순유입 (주별)



자료: FNSpectrum, KB증권

ESG 채권형 펀드는 전주 대비 1,904억원 유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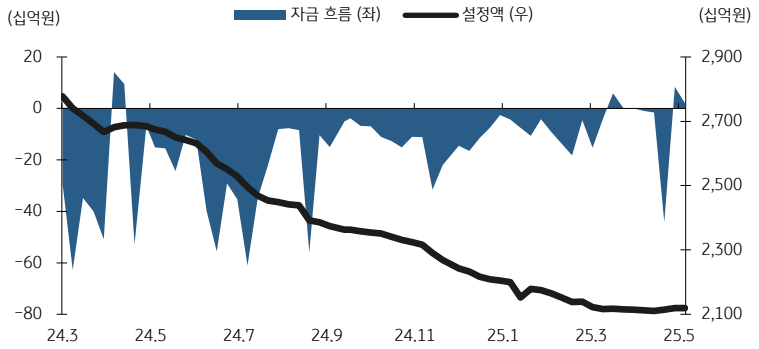
그림 3. 국내 ESG 채권형 펀드의 AUM 및 자금 순유입 (주별)



자료: FNSpectrum, KB증권

녹색성장 펀드는 전주 대비 20억원 유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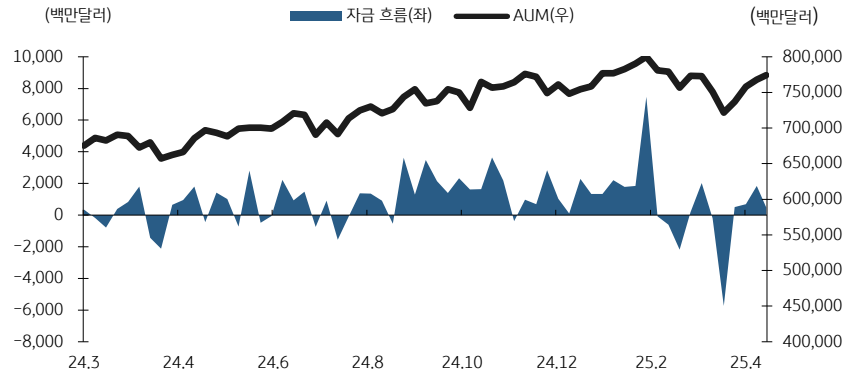
그림 4. 국내 녹색성장 펀드의 AUM 및 자금 순유입 (주별)



자료: FNSpectrum, KB증권

글로벌 ESG ETF으로부터 4주 연속 자금 유입 중

그림 5. 글로벌 ESG 펀드의 AUM 및 자금 순유입 (주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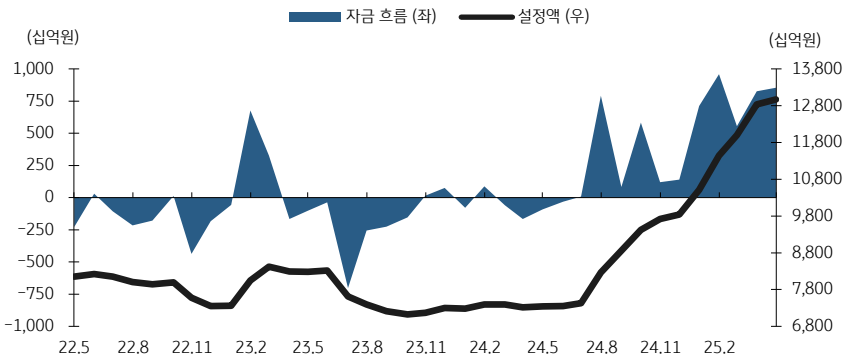


자료: Factset, KB증권

주: 국내외 1,950개 ESG ETF. 상장폐지/청산/인수 반영

SRI 펀드는 5월 들어 8,526억원 유입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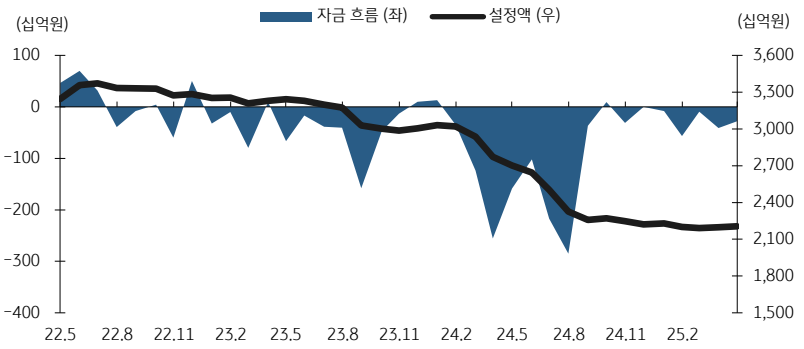
그림 6. 국내 SRI 펀드 AUM 및 자금 순유입 (월별)



자료: FNSpectrum, KB증권

ESG 주식형 펀드는 5월 들어 279억원 유출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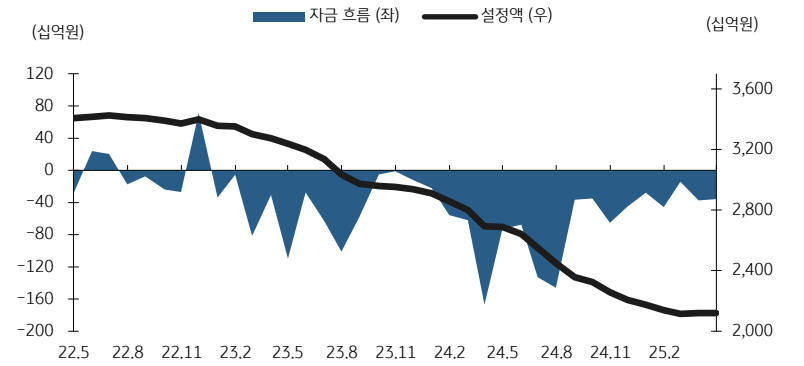
그림 7. 국내 ESG 주식형 펀드의 AUM 및 자금 순유입 (월별)



자료: FNSpectrum, KB증권

ESG 채권형 펀드는 5월 들어 1조 330억원 유입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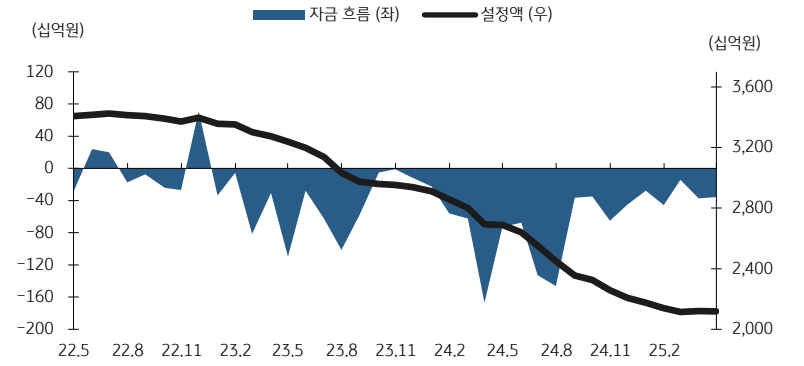
그림 8. 국내 ESG 채권형 펀드의 AUM 및 자금 순유입 (월별)



자료: FNSpectrum, KB증권

녹색성장 펀드는 5월 들어 359억원 유출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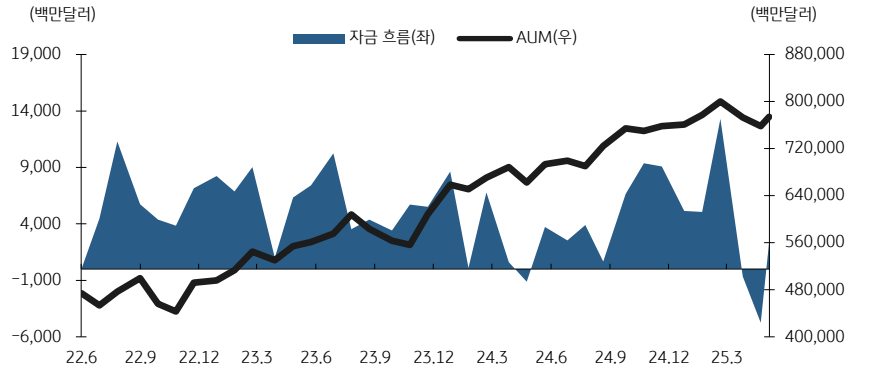
그림 9. 국내 녹색성장 펀드의 AUM 및 자금 순유입 (월별)



자료: FNSpectrum, KB증권

글로벌 ESG ETF는 5월 들어 23.3억 달러 유입 중

그림 10. 글로벌 ESG 펀드의 AUM 및 자금 순유입 (월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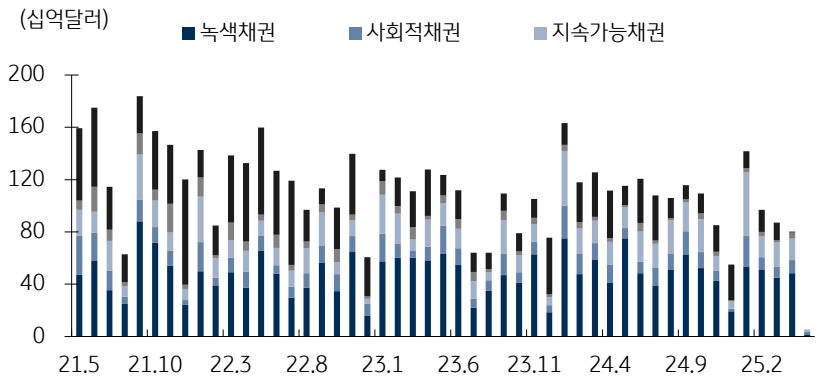


자료: Factset, KB증권

주: 국내외 1,950개 ESG ETF. 상장폐지/청산/인수 반영

ESG 채권발행 시장 동향

그림 11. 글로벌 ESG 채권 발행량 (월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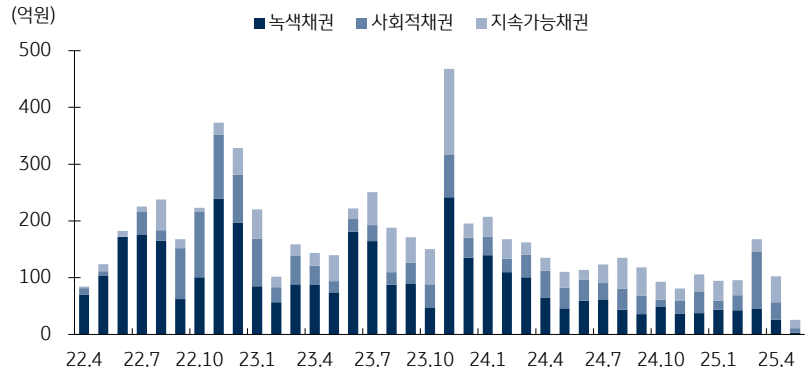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KB증권

주1: 2025.5.9 기준

주2: 25년 5월 9일 현재 누적 발행량

그림 12. 국내 ESG 채권 거래량 (월별)



자료: KRX, KB증권

주1: 2025.5.9 기준

주2: 25년 5월은 9일 현재 누적 거래량

표 1. 최근 한 달간 국내 ESG 채권 발행 현황

발행기관	채권종류	총 발행 금액 (십억원)	발행 금액 (십억원)	만기	발행일	만기일	국고채 대비 (bp)	등급 대비 (bp)	발행사 대비 (bp)	발행목적
하나카드	녹색채권	70	70	3Y	25/5/9	28/5/9	47.5	0	0	친환경 차량 대상 금융 상품 제공
기업은행	녹색채권	150	100	3Y	25/5/2	28/5/2	16.8	0	0	-
	녹색채권		50	3Y	25/5/2	28/5/2	16.8	0	0	
현대캐피탈	녹색채권	420	50	3Y	25/4/23	28/4/20	41.9	-3.4	-3.6	친환경 차량 대상 금융 상품 제공
			160	3Y	25/4/23	28/4/21	41.9	-3.4	-3.6	
			200	5Y	25/4/23	30/4/23	42.5	-2.1	-2.8	
			10	7Y	25/4/23	30/6/21	27.7	-40.8	-4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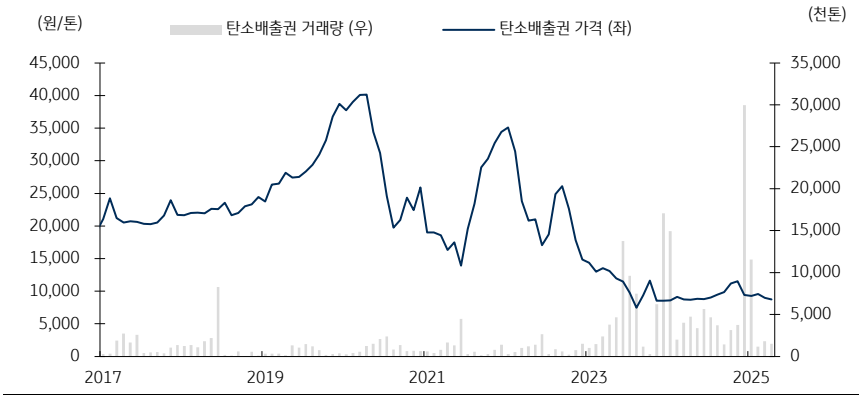
자료: 한국거래소, KB증권

주1: 주택금융공사 및 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한 물량 제외

주2: 2025.5.9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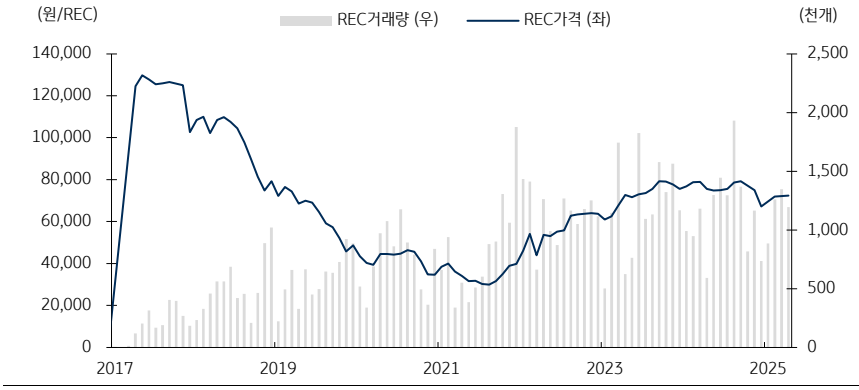
탄소배출권 및 에너지 전환 동향

그림 13. 국내 탄소배출권 가격 및 거래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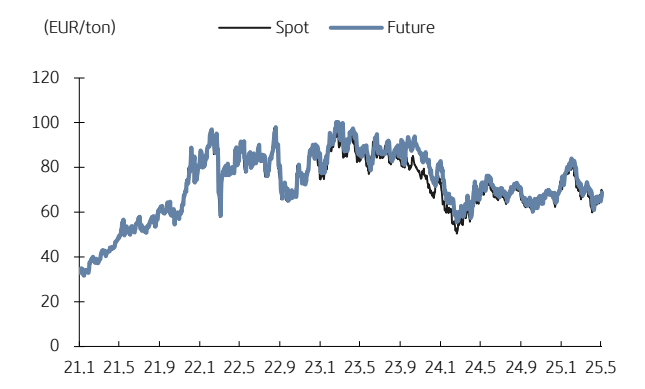
자료: 한국거래소, KB증권

그림 14. 국내 REC 가격 및 거래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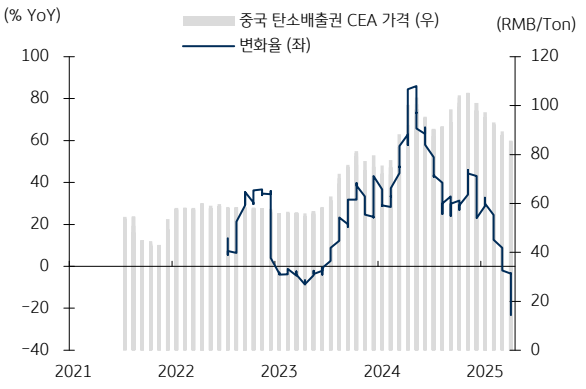
자료: EPSIS, KB증권

그림 15. 유럽 탄소배출권 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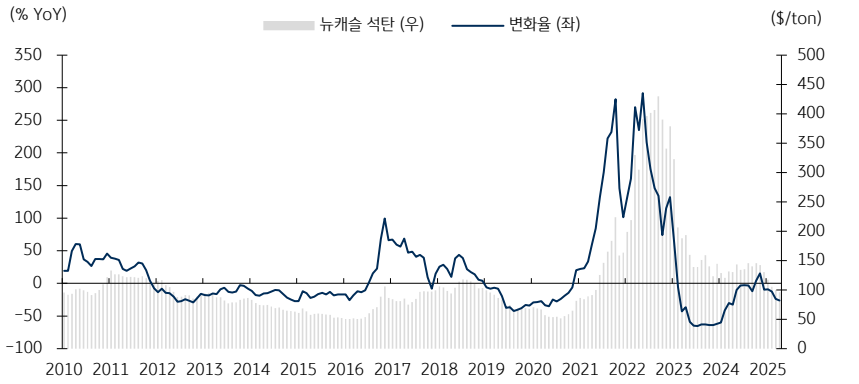
자료: Refinitiv, KB증권

그림 16. 중국 탄소배출권 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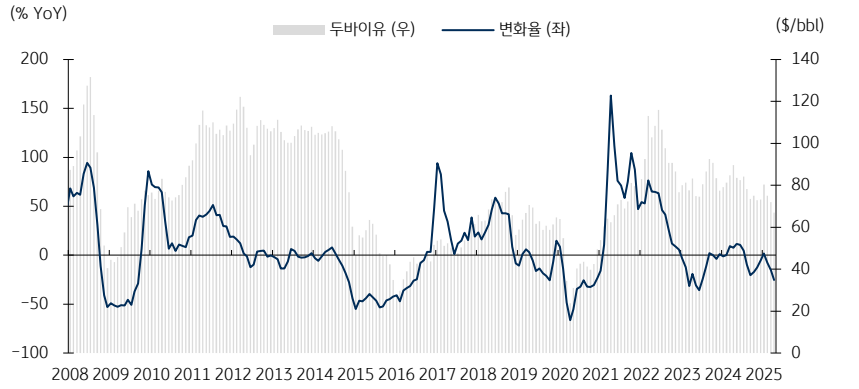
자료: CEIC, KB증권

그림 17. 글로벌 석탄 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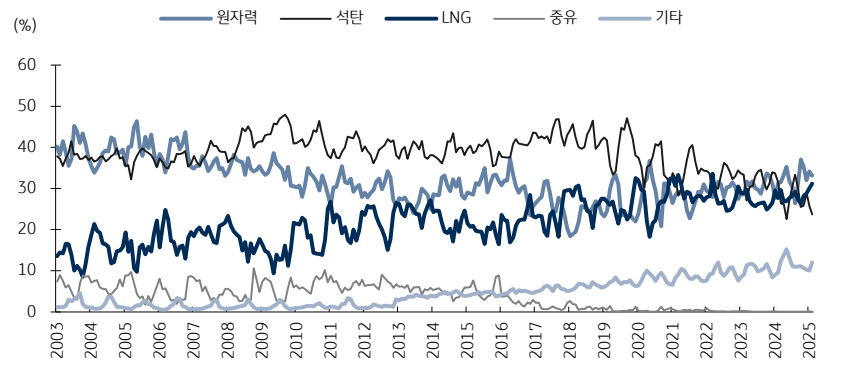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KB증권

그림 18. 두바이 유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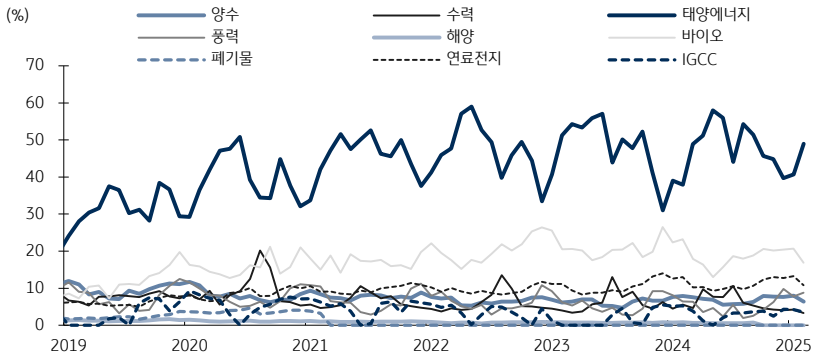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KB증권

그림 19. 국내 발전원별 발전 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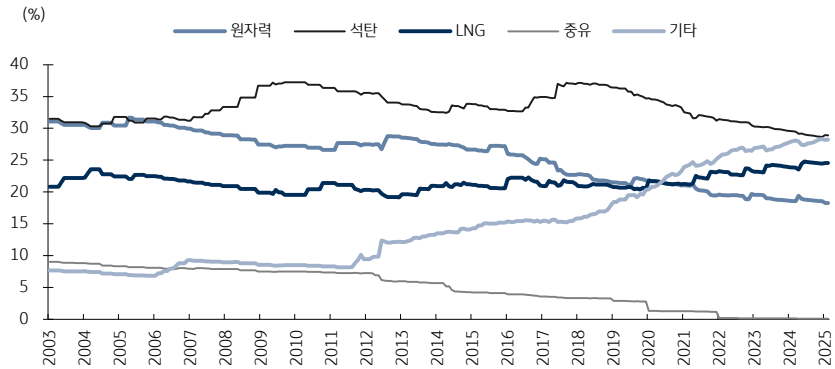
자료: 한국전력, KB증권

그림 20. 국내 신재생 발전원별 발전 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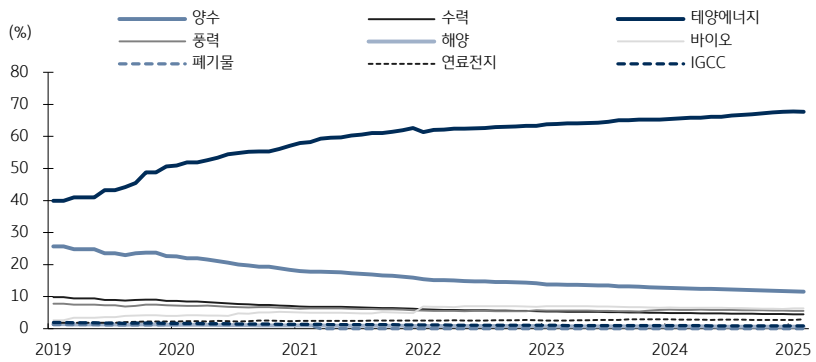
자료: 한국전력, KB증권

그림 21. 국내 발전원별 발전설비 비중



자료: 한국전력, KB증권

그림 22. 국내 신재생 발전원별 발전설비 비중



자료: 한국전력, KB증권

ESG 등급, ESG 관련 논란 이슈 동향

표 2. 최근 한 달간 MSCI 기준 ESG 평가 등급 변동 기업 (Rating)

기업	종목코드	날짜
(Upgrade)		
고려아연	010130	4/21
한일시멘트	300720	4/21
오뚜기	007310	3/27
GS건설	006360	3/26
(Downgrade)		
동서	026960	3/27
셀트리온제약	068760	3/26
(New Rating)		
한화비전	489790	4/29
덕산테코피아	317330	4/29
중앙첨단소재	051980	4/29
빙그레	005180	4/28
LS에코에너지	229640	4/28
KC테크	281820	4/28
태성	323280	4/22

자료: MSCI Website, KB증권

표 3. 최근 한 달간 ESG 관련 이슈 발생 국내 기업 (Controversial Issue)

날짜	기업 (종목명)	종목코드	논란 이슈
*5/7	SK	034730	'SKT 해킹' 머리 숙인 최태원..."그룹 전반 보안 체계 점검"
*5/7	SK텔레콤	017670	'SKT 해킹' 머리 숙인 최태원..."그룹 전반 보안 체계 점검"
4/9	카카오페이	377300	금감원, 카카오페이에 과징금 150억... 최종 결정은 금융위 손에 (조선비즈)
4/9	크래프톤	259960	크래프톤, 인도서 사용자 데이터 유출로 고발...인도 시장 확장에 '찬물' (파이낸셜뉴스)
4/4	키움증권	039490	키움증권 MTS 먹통 사태...금감원 검사 나서나 (뉴시스)
4/1	기아	000270	EU, 폐차 담합 車제조사 15곳에 과징금...현대·기아차도 191억원 낸다 (뉴스1)

자료: 언론종합, KB증권

주: *는 금주 추가 이슈

투자자 고지 사항

KB증권은 동 조사분석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조사분석담당자와 그 배우자는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 작성자는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이 보고서는 고객들에게 투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며 계약의 청약 또는 청약의 유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이 보고서는 KB증권이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하는 자료와 정보에 근거하여 해당일 시점의 전문적인 판단을 반영한 의견이나 KB증권이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개별 투자는 고객의 판단에 의거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이 보고서는 여하한 형태로도 고객의 투자판단 및 그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이 보고서의 저작권은 KB증권에 있으므로 KB증권의 동의 없이 무단 복제, 배포 및 변형할 수 없습니다. 이 보고서는 학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므로, 학술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KB증권에 사전 통보하여 동의를 얻으시기 바랍니다.